

친환경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광업계 인식 조사

강미희¹⁾ · 이원희²⁾ · 김 현³⁾

¹⁾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 ²⁾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³⁾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A Study on Tourism Companies' Awareness for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Tourism Certification Program

Kang, Mihee¹⁾ · Lee, Wonhee²⁾ and Kim, Hyun³⁾

¹⁾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Yeungnam University,

²⁾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³⁾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ance of, and attitudes towards, environmental tourism among domestic tourism companies by their types and scale, and to propose a policy direction for a new certification program on environmental tourism.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152 tourism accommodations and 150 travel agenc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ourism accommodations and a large scale of companies had participated in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more often than travel agencies and a small scale of companies. Also, tourism accommodations were more likely to recognize well a relation between their business and environmental tourism, and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a new certification program than travel agencies. A large scale of tourism accommodation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environmental tourism than a small scale of tourism accommodations. On the other hand, all of the travel agencies showed less positive attitudes towards environmental tourism regardless of their siz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dopt a different approach to a new certification program according to tourism companies' types and scale, also it should provide

Corresponding author : Lee, Wonhe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827 Banghwa3-dong, Gangseo-gu, Seoul 157-857, Korea,
Tel : +82-2-2669-8432, E-mail : whlee@kcti.re.kr

Received : 3 September, 2010. **Revised** : 13 October, 2010. **Accepted** : 22 November, 2010.

a variety of incentives and supports for tourism companies.

Key Words : *Environmental tourism, Certification program, Tourism companies.*

I. 서 론

관광분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 마닐라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추구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표된 바 있다.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실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세계관광기구(UNWTO)는 유엔 산하 유관기구 및 유럽연합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헌장(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을 채택하였다. 이어 1996년에는 세계여행관광위원회(WTTC)와 세계관광기구(UNWTO), 지구협의회(Earth Council)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여행과 관광산업에 대한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역시 자원이용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미희, 2007).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양질의 경험을 통한 관광만족도 제고, 환경자원의 보전 및 유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관광이 관광산업과 자연환경, 지역사회의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지 못한 반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다양한 이들 욕구의 균형점을 찾아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김성일 · 박석희, 2001). 지속가능한 관광은 대중관광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관광에서 추구해야 할 개발 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범적인 실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관광업계의 대응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과 원칙도 변하고 있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과 더불어 기후적 대응 및 지속성을 반영한 확대된 개념의 지속가능한 관광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녹색관광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농촌관광 의미에서 벗어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핵심용어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때 녹색관광의 개념은 환경 친화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저감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형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한국관광공사, 2009).

기후변화는 관광시즌의 기간과 질, 대상지 선택 및 비용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부각되고 있으며, 생태자원의 매력 훼손이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등은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차원에서도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강구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친환경 실천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 관광산업 부문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몇몇 선도적 호텔이나 리조트 업체의 경우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Green Globe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국제 환경인증은 대부분 영세한 국내 관광업체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관광분야에서 운영되는 유사 인증제도로는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관광호텔등급제도’, ‘굿스테이’ 등이 있다. ‘우수여행상품 인증제(2002년 도입)’는 시장 인지도가 낮고 인증업체가 인지하는 실질적인 편익이나 효과가 미미하며, ‘관광호텔등급제도(1971년 도입)’의 경우 시설 및 서비스 관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친환경적인 실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

지난 2008년 8월 15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6조(사업자의 책무)에 따르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동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녹색인증 대상에는 생태관광을 포함한 친환경관광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인증이 정부가 지정 고시한 녹색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녹색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강한 데 반해, 실제 친환경실천을 유도하고 실천 정도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생태관광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기술의 활용을 통한 녹색사업인증과 생태관광인증 등은 관광분야에서의 자발적인 친환경실천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유사 인증제도는 국내 관광업계 전반의 친환경실천을 유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시대 및

새롭게 등장한 친환경관광에 대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환경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관광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친환경 실천율과 친환경관광과 관련된 인식 차이를 검증하고, 향후 국내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의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고찰

관광사업체의 친환경실천은 친환경인증의 역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친환경관광 인증이란 관광과 관련된 기업, 상품, 과정, 서비스 또는 관리체계가 환경 친화적이며 품질이 우수함을 공인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관광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관광의 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도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강미희, 2007). 관광 분야에서 에코라벨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는 매우 새로운 개념이었으므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친환경관광인증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제도는 선구적이고 개척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다(Honey and Rome, 2001).

세계관광기구(UNWTO)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관광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라벨(label), 상(awards), 벤치마킹(benchmarking), 우수사례발굴(best practices) 등 총 250여개의 자발적인 실천행동(voluntary initiatives)이 있으며, 이들 중 약 100여 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관광실행을 표명하기 위해 고안된 로고(logo), 승인표(seal of approval), 상(awards) 등을 제공하는 에코라벨링(ecolabeling) 또는 관련 인증프로그램이다(Honey and Rome, 2001; UNWTO, 2002).

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원으로 조사를 실시한 ECOTRANS는 친환경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CESD¹⁾, Rainforest Alliance and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2009; UNWTO, 2002). 1992년 ‘리우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이후 2002년이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된 시기를 거치면서 환경과 관련하여 관광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60개 이상 개발되었으며, 2007년까지 약 80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조사된 80개의 프로그램 중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또 이들 프로그램의 대부분(78%)이 유럽에서 개발되어 적용되는 것들이며,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인증제도는 5%에 불과하였다. 인증의 대상 역시 숙박시설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고 여행사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은 7%에 불과하였다.

최근에는 환경인증의 대상이 보다 폭넓은 관광산업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인증하는 사례를 들면, 골프 코스에 부여되는 Audubon Cooperative Sanctuary System, 청정해변에 대한 Blue Flag, 보호지역 관광 관련 인증인 PAN Parks, 갈라파고스 보트에 대한 Smart Voyager, 그리고 자연관광과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도인 호주의 Eco Certification Program, 관광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 인증 프로그램인 Green Globe 등이 있다.

국내 호텔의 경우 환경친화적 경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설투자자와 같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태영, 2004). 국내 호텔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 마인드 제고, 재원 조달, 환경인력 확보, 직원교육,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지역 중소규모 관광숙박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친환경 경영실천의 이점은 ‘그린(green) 추세에 부응’, ‘환경보호에 기여’, ‘윤리적 경영’, ‘기업 이미지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오상훈·고성호, 2006). 주된 장애요인으로는 실천의지의 부족,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며 친환경 경영실천 노하우 및 기대효과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에코라벨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에코라벨의 사용 목적은 첫째, 관광기업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장려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제한하고(UNEP, 1998), 둘째,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광활동과 선택에 따른 영향을 인식시키고 친환경기업에 대한 구매 선호를 유도하는데 있으며(UNEP, 1998), 셋째, 친환경 관광상품과 서비스의 기준을 개발하는데 있다(Mihalic, 2000). 특히, 국제적인 환경인증의 획득과 홍보를 통해 소비지출이 많고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서구 여행객들을 마케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asidharan et al., 2002).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친환경관광 인증의 실효성에 관한 몇 가지 이슈들을 제기한 바 있다(Sasidharan et al., 2002). 첫째, 영향평가기준은 진정한 환경보호 보다는 관광기업들의 이익과 관심을 고려한 절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친환경인증에 관한 의사결정이 비교적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가진 특정 그룹(예를 들어, 대기업)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참여 부족과 이로 인한 재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인증의 기준을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친환경관광 인증의 평가기준이 대부분 선진국들의 특수한 관심사항에 근거하고 있어 그 외 국가들의 관광산업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친환경관광 인증이 잠재 수요자들에게 심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 분석에 관한 정보가 아닌, 다소 주관적이고 여과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1) CEST는 Center for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자이며, 현재는 Center for Responsible Travel(CREST)로 명칭을 변경함([http : //www.responsibletravel.org/home/index.html](http://www.responsibletravel.org/home/index.html) 참고).

앞서 세 번째 이슈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은 결국 사업체의 규모와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일수록 연구개발 비율이나 교육훈련 비용 등에서 소규모 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김신중, 1998). 따라서 친환경 실천 관련 설비를 갖추거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영세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 관광분야에서 환경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의 예를 보면 서울프라자호텔, 힐튼호텔, 제주신라호텔 등이 ISO14001을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프라자호텔만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이 2008년 세계적인 환경 벤치마킹 프로그램인 ‘그린 글로브(Green Globe)’에서 브론즈 레벨을 획득했다. 이와 같이 소규모 숙박시설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급호텔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실행을 통해 인증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호텔들이 국제적 환경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핵심 목표시장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제적 환경 기준에 부합하여 인증을 획득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 잠재고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인증의 획득과 유지 과정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경영비용의 절감 역시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한편 국내적으로 법적 기준이 마련된 수질, 대기질, 소음수준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된 친환경 분야의 경우 민간 사업체들의 실천율이 높을 수 있으나, 환경해설과 같이 법제도적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참여가 권고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개념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친환경관광이란 곧 환경 친화적인 관광을 의미하며,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노력을 강조한 개념이다.

친환경관광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저감을 추구하는 녹색관광의 개념을 포괄하며, 앞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의 목표를 지향하는 관광형태로서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보다는 환경적 지속성 실현에 초점을 두는 관광을 의미한다.

2. 연구설계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광업계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관광 실천현황, 기존의 인증 참여현황,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수요 등에 관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표 1).

특히, 국내 관광사업체의 친환경관광 실천현황

표 1. 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문항
친환경관광 관련 실태	친환경관광과 업무의 관련성, 친환경관광 실천 현황(11개 영역 48개 항목), 국내외 인증 참여 현황, 인증 종류 및 획득 연도, 현재 인증 유지 여부, 기존 인증에 대한 만족도, 기존 인증에 대한 불만족 이유	7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수요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참여 의향,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의 우선지원 사항,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유형, 친환경관광 인증관련 적정 비용, 기타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7

표 2. 조사 참여 관광사업체 및 응답자 특성.

	항목	특성
응답자 특성	성별	남 195명(64.6%), 여 107명(35.4%)
	연령	20대 47명(16.5%), 30대 104명(36.6%), 40대 94명(33.1%), 50대 31명(10.9%), 60대 이상 8명(2.8%)
업체특성 (셀병합)	유형	관광숙박업체 152부, 여행업체 150부
	업계유형	관광숙박업 : 가족호텔업 6(2%), 관광호텔업 115(38.1%), 휴양콘도미니엄업 31(10.3%) 여행업 : 일반여행업 14(4.6%), 국외여행업 15(5%), 국내여행업 66(21.9%), 국내외여행업 55(8.2%)
	관광호텔업 등급 (표본수 =115)	1급 42(37.5%), 2급 29(25.9%), 3급 7(6.3%), 4급 1(0.9%), 무공화 2(1.8%), 일반 8(7.1%), 특급 1(0.9%), 특1급 9(8%), 특2급 13(11.6%)
	관광숙박업 객실수 (표본수=152)	50실 미만 22(14.5%), 50~99실 66(43.4%), 100~199실 31(20.4%), 200~299실 16(10.5%), 300실 이상 17(11.2%)
	정규직원수	1~10명 미만 135(44.7%), 10~30명 미만 86(28.5%), 30~50명 미만 33(10.9%), 50~100명 미만 25(8.3%), 100명 이상 23(7.6%)
	2008년 기준매출액	1억원 미만 56(20.4%), 1~5억 미만 97(35.4%), 5~10억 미만 33(12%), 10억 이상 88(32.1%)

에 관한 평가를 위해 ‘Green Globe’의 Company Standard, 호주의 ‘Eco Certification Program’, 뉴질랜드의 ‘Qualmark Green’, 코스타리카의 ‘CST’, ‘ECOTEL’, ‘Travel Green’ 등 해외 모범적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주요 영역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일부 관광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ISO14001’ 인증을 고려하여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평가영역을 추가하고, 친환경관광이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이 있는 ‘환경교육/해설’, ‘생태계/경관보전’, ‘지역사회 복지’ 등도 평가영역에 반영하였다. 각 영역별 세부적인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 ‘ISO14001’, ‘Green Globe’의 Company Standard, ‘Travel Green’ 등 유사사례들을 참조하였으며, 그 결과 총11개 영역 및 4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표 3 참조).

3. 연구표본

국내 관광사업체의 친환경 실천 현황과 친환경관광 인증에 관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은 국내 관광사업체 가운데 대다수(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여행업체와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진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52개 숙박업체 및 150개 여행업체로부터 유효한 설문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관광사업체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4. 연구분석의 초점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관광인증 분야는 대부분 숙박시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특급관광호텔밖에 없었다.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지표와 기준 설정과 평가가 용이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행업체보다 실제로 친환경실천이 가지고 오는 편익을 더 지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인증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투자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숙박업계와 여행업계 등 서로 다른 관광업계간 친환경 실천율을 비교하고, 각 유형 내에서 사업체 규모가 친환경 실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친환경관광 관련 태도(업무와 관련성, 인증 참여의사)가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향후 녹색인증과 생태관광인증 등 국내 친환경관광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제언을 얻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광사업체 유형별 친환경 실천 차이

숙박업계의 친환경 실천율과 여행업계의 친환경 실천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체 유형별 친환경 실천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사업체들이 어떠한 친환경 실천노력을 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예’와 ‘아니오’로 분석하고(표 3), 업종별로 각각 구분하여 실천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표 항목군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복지(72.7%), 에너지 보존관리(57.3%), 친환경 교통수단(56.9%), 쓰레기와 폐기물 관리(56.4%)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실천노력을 나타낸 반면, 환경교육 및 해설(6.6%), 생태계 및 경관 보전(13.9%), 친환경 경영체계(34.6%) 관련한 실천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 항목별 응답을 비교하면, ‘정부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냉난방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91.7%)’,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88.4%)’, ‘수자원 기기 등을 정기적으로 수리한다(8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교육 및 해설’군에 속한 세부지표항목과 관련된 실천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나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정책 시행이 관련 활동의 실천율을 높인 반면, 환경교육이나 해설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권고가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항목에 대한 실천율이 낮은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숙박업계와 여행업체로 구분하여 상이한 두 업체 유형간 친환경관광 실천현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시된 총 28개 실천항목 중 9개를 제외한 19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항목에서 숙박업체들의 실천율이 여행업체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업체 유형간 친환경 실천율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관광사업체 규모별 친환경 실천 차이

숙박업계 및 여행업계 각 유형 내에서 사업체 규모가 친환경 실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체 유형별로 규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관광숙박업은 종사자 규모 5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규모로 구분하였으며 여행업은 종사자 규모 1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기준은 법적 기준 등이 특별히 없으며, 종사자의 규모 역시 많은 편차가 있으므로 통계분석이 가능한 집단의 표본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여행업의 경우 약 73%가 10명 이하의 종사자를 갖고 있으며 만약 조사한 다음 수준인 30명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면 30명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업체의 표본수가 10개에 불과해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통계분석을 위한 표본수가 30개가 넘는 1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규모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숙박업계의 경우, 제시된 총 28개 실천항목 중 22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즉, 대규모 숙박업체들의 친환경 실천율이 소규모 숙박업체들에 비해 상대적

표 3. 관광사업체의 친환경 실천 현황.

		실천율	
		빈도 (개)	실천율 (존재여부)(%)
친환경 경영체계	정부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	285	94.4
	친환경 경영 및 운영관리 시스템이 존재한다	84	27.8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 있다	34	11.3
	전 직원을 위한 환경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51	16.9
	친환경 경영관련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8	22.5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36	11.9
	냉난방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277	91.7
	기계 및 장치 등의 탄화수소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175	57.9
에너지 보존관리	직원/고객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동참 유도한다	155	51.3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78	25.8
	에너지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205	67.9
	경제형 조명기기를 사용한다	220	72.8
수자원 및 하수관리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및 장비를 구매/임대한다	202	66.9
	직원/고객에게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60	53.0
	수자원 절약 및 하수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71	23.5
	물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192	63.6
	수자원 기기 등을 정기적으로 수리한다	253	83.8
대기 및 소음관리	관개, 세탁, 화장실 등에 재생용수를 사용한다	64	21.2
	직원/고객에게 수자원 절약 정보를 제공한다	117	38.7
	대기의 질 및 소음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30	9.9
	CFC's 제품 및 공기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175	57.9
	건물/이동수단 내에서의 금연을 실시한다	249	82.5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용품(저휘발성)을 사용한다	152	50.3
	사업장/관광지 내의 소음방지 노력을 실시한다	224	74.2
	쓰레기 감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86	28.5
	쓰레기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135	44.7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	267	88.4
재활용 및 재사용	음식물 쓰레기 감소 노력을 실시한다	221	73.2
	직원/고객에게 쓰레기 감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43	47.4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80	26.5
	재활용 쓰레기통을 사용한다	197	65.2
	재활용 물품을 구매/사용한다	186	61.6
친환경 교통수단	고객에게 비품 또는 제품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98	32.5
	직원/고객에게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32	43.7
	직원/고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211	69.9
	사업장/관광지에서 자전거 대여/사용이 가능하다	44	14.6
환경교육 및 해설	이동/여행 시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31	76.5
	친환경 연료(경유, LPG 등)를 사용한다	201	66.6
	고객을 위한 환경교육 및 해설프로그램이 존재한다	13	4.3
	환경교육을 이수한 가이드/해설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28	9.3
생태계 및 경관보전	환경정보 관련 정보를 웹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22	7.3
	기업의 환경개선노력에 관한 고객설문 등이 마련되어 있다	17	5.6
	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16	5.3
지역사회 복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78	25.8
	직원/고객에게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10.6
	지역주민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228	75.5
	지역에서 생산/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다	229	75.8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2	66.9

표 4. 관광사업체 유형별 친환경 실천 비교 검증.

친환경실천 항목 ¹⁾		유형별 평균값		T값
		숙박업	여행업	
친환경 경영체계	정부의 환경법규 준수	0.99	0.89	3.853***
	친환경 경영 및 운영관리 시스템 존재	0.45	0.10	7.446***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존재	0.20	0.02	5.268***
	전 직원 위한 환경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존재	0.28	0.05	5.575***
	이해관계자(주민포함)와의 협의 존재	0.37	0.08	6.372***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	0.23	0.01	6.367***
	냉난방 사용을 최소화	0.95	0.88	2.345*
	기계 및 장치 등의 탄화수소 배출을 제한	0.78	0.38	7.591***
에너지 보존관리	직원/고객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동참 유도	0.69	0.33	6.631***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존재	0.45	0.06	8.728***
	에너지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체크	0.95	0.40	12.761***
	경제형 조명기기 사용	0.93	0.53	8.747***
수자원 및 하수관리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및 장비 구매/임대	0.81	0.53	5.451***
	직원/고객에게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	0.82	0.23	12.659**
	수자원 절약 및 하수관리 프로그램이 존재	0.39	0.07	7.093***
	물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체크	0.93	0.34	13.353***
	수자원 기기 등을 정기적으로 수리	0.99	0.68	8.133***
대기 및 소음관리	관개, 세탁, 화장실 등에 재생용수 사용	0.32	0.11	4.584***
	직원/고객에게 수자원 절약 정보 제공	0.65	0.12	11.268***
	대기의 질 및 소음관리 프로그램 존재	0.16	0.04	3.482**
	CFC's 제품 및 공기유해물질 사용 제한	0.66	0.50	2.806**
	건물/이동수단 내에서의 금연 실시	0.89	0.75	3.276**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용품(저휘발성) 사용	0.68	0.32	6.773***
	사업장/관광지 내의 소음방지 노력 실시	0.86	0.63	4.686***
	쓰레기감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존재	0.47	0.10	7.711***
	쓰레기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체크	0.70	0.19	10.185***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	0.92	0.85	2.026*
재활용 및 재사용	음식물 쓰레기 감소 노력 실시	0.96	0.50	10.537***
	직원/고객에게 쓰레기 감축에 관한 정보 제공	0.76	0.18	12.460***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그램 존재	0.41	0.12	5.977***
	재활용 쓰레기통 사용	0.66	0.64	0.445
	재활용 물품을 구매/사용	0.68	0.55	2.231*
친환경 교통수단	고객에게 비품 또는 제품 재사용 권장	0.42	0.23	3.676***
	직원/고객에게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정보 제공	0.64	0.23	8.049***
	직원/고객의 대중교통 이용 장려	0.74	0.66	1.455
	사업장/관광지에서 자전거 대여/사용 가능	0.18	0.11	1.915
환경교육 및 해설	이동/여행 시 경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0.72	0.81	-1.703
	친환경 연료(경유, LPG 등)를 사용	0.78	0.55	4.479***
	고객을 위한 환경교육 및 해설프로그램 존재	0.07	0.02	1.966
	환경교육을 이수한 가이드/해설인력 고용	0.08	0.11	-0.828
생태계 및 경관보전	환경정보 관련 정보를 웹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	0.11	0.03	2.646**
	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에 관한 고객설문 등 마련	0.09	0.03	2.230*
	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	0.11	0.00	4.187***
지역사회 복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기부 실천	0.30	0.22	1.510
	직원/고객에게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0.18	0.03	4.176***
	주민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고용기회 제공	0.80	0.71	1.944
	지역에서 생산/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	0.77	0.75	0.467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	0.81	0.53	5.451***

1) “예(1점)”와 “아니오(0점)”로 측정함.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반면, 여행업계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친환경 실천에 관한 항목 총 28개 가운데 2개 항목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실천율에서 여행업계는 전반적으로 숙박업체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였는데, 이는 규모에 상관없이 여행업계 전반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행업체의 규모가 친환경 실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규모가 큰 여행업체일수록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

나 자연환경 보호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관광사업체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친환경 관련 태도 차이

사업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친환경관광 관련 태도(업무와 관련성, 인증 참여의사)가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업체의 업무와 ‘친환경관광’이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7%가 다소 관련이 있거나 매우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로 비교해

표 5. 관광숙박업체 규모별 친환경 실천 비교 검증.

		종사자규모별 평균값		T값
		소규모 (50명 미만) n=106	대규모 (50명 이상) n=46	
친환경 경영체계	친환경 경영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존재	0.12	0.39	-3.380**
	전 직원 위한 환경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존재	0.21	0.46	-2.959**
	이해관계자(주민포함)와의 협의 존재	0.31	0.50	-2.165*
에너지 보존관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존재	0.34	0.72	-4.555***
수자원 및 하수관리	수자원 절약 및 하수관리 프로그램이 존재	0.28	0.65	-4.531***
	물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체크	0.91	0.98	-2.024*
	관개, 세탁, 화장실 등에 재생용수 사용	0.25	0.46	-2.358*
대기 및 소음관리	대기의 질 및 소음관리 프로그램 존재	0.10	0.28	-2.426*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용품(저휘발성) 사용	0.63	0.80	-2.279*
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	쓰레기감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존재	0.40	0.63	-2.705**
	쓰레기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체크	0.63	0.85	-3.026**
재활용 및 재사용	재활용 및 재사용 프로그램 존재	0.31	0.63	-3.828***
	고객에게 비품 또는 제품 재사용 권장	0.37	0.54	-2.028*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연료(경유, LPG 등)를 사용	0.73	0.91	-3.086**
환경교육 및 해설	고객을 위한 환경교육 및 해설프로그램 존재	0.01	0.20	-3.110**
	환경교육을 이수한 가이드/해설인력 고용	0.04	0.17	-2.289*
	환경정보 관련 정보를 웹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	0.03	0.30	-3.917***
생태계 및 경관보전	생태계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	0.06	0.22	-2.455*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기부 실천	0.24	0.43	-2.348*
	직원/고객에게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0.13	0.28	-2.012*
지역사회 복지	주민 또는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고용기회 제공	0.75	0.91	-2.666**
	지역에서 생산/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	0.71	0.91	-3.362**

표 6. 여행업체 규모별 친환경 실천 비교 검증.

		종사자규모별 평균값		T값
		소규모 (10명 미만) n=109	대규모 (10명 이상) n=41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연료(경유, LPG 등)를 사용	0.50	0.68	-2.133*
생태계 및 경관보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기부 실천	0.17	0.37	-2.386*

표 7. 관광사업체 유형별 친환경 관련태도 차이.

	유형		T값
	숙박업 (n=152)	여행업 (n=150)	
친환경실천과 업무 관련성 ¹⁾	3.48	2.69	6.175***
친환경관광인증 참여의사 ²⁾	3.55	3.08	4.361***

1) “전혀 관련없다(1점)”에서부터 “매우 관련있다(5점)”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2)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꼭 참여한다(5점)”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보면, 관광숙박업계 종사자가 여행업계 종사자보다 친환경관광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의 주도로 ‘친환경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사업체의 참여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약 46.0%가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비교했을 때, 관광숙박업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5.9%가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여행업은 전체 중 36%가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에 참여의사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숙박업계가 여행업계보다 친환경관광의 업무관련성 및 친환경관광인증제도에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관광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친환경관광 관련태도가 다른지 검증해본 결과, 숙박업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두 항목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행업계는 친환경실천과 업무 관련성 및 친환경관광인증 참여의사에 있어서 규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에 참여의사가 있는 주된 이유를 분석한 결

표 8. 관광숙박업체 규모별 친환경 관련태도 차이.

		종사자규모별 평균값		T값
		소규모 (50명 미만) n=106	대규모 (50명 이상) n=46	
친환경실천과 업무 관련성 ¹⁾		3.29	3.91	-3.541**
친환경관광인증 참여의사 ²⁾		3.42	3.85	-3.315**

1) “전혀 관련없다(1점)”에서부터 “매우 관련있다(5점)”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2)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꼭 참여한다(5점)”까지 5점 라이커트 척도로 측정함.

표 9. 향후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참여의 이유(순위비교).

	1순위		2순위		우선 순위*
	빈도 (개)	비율 (%)	빈도 (개)	비율 (%)	
전체	139	100.0	122	100.0	
친환경 실천을 통한 경비 절감	72	51.8	16	13.1	1
기업 이미지 제고	39	28.1	23	18.9	2
환경위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12	8.6	25	20.5	3
변화된 고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	7.2	24	19.7	5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기대 때문	6	4.3	34	27.9	4

※ 우선순위 선정 가중치 부여 방법 : 1순위 응답 X 2 + 2순위 응답 X 1

과, 친환경 실천을 통한 경비 절감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에 참여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기업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광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친환경 실천율과 친환경관광과 관련된 인식 차이를 검증하고, 향후 국내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의 도입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내 관광사업체 수의 대부분(약73%)은 여행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에 비해 매출액 규모나 종사자 수가 영세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관광기업 가운데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곳은 10 여개에 불과하며 이또한 대부분 숙박업체이며, 상대적으로 여행업계의 친환경 인식과 실천노력은 미흡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관광숙박업체의 친환경실천 및 친환경관광 인식 수준이나 친환경관광인증제도 참여의사가 여행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천항목별로는 지역사회 복지 기여 및 에너

표 10. 향후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비 참여 이유(순위비교).

	1순위		2순위		우선 순위*
	빈도 (개)	비율 (%)	빈도 (개)	비율 (%)	
전체	160	100.0	109	100.0	
기업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한 의문	33	20.6	16	14.7	2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에 대한 의문	6	3.8	5	4.6	6
경비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	16	10.0	14	12.8	4
복잡한 서류 및 행정처리 업무	24	15.0	29	26.6	3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없음	55	34.4	31	28.4	1
현재 기업 경영에 만족	11	6.9	14	12.8	5
기타	15	9.4	-	-	

※ 우선순위 선정 가중치 부여 방법 : 1순위 응답 X 2 + 2순위 응답 X 1

지 보존 관리, 대중교통 장려, 쓰레기 저감 등을 위한 실천노력은 높은 반면 환경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실천노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법적 강제성이 있거나 실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적고 계량화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에서는 업계의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숙박업체가 여행업체보다 친환경적인 이유는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체 규모 면에서 숙박업체가 여행업체보다 크고, 재정이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숙박업의 특성상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많고 해당 업무(시설, 서비스)가 환경과 관련이 많아 친환경 이슈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관광사업체 규모에 따른 친환경 실천율의 차이는 결국 사업체의 유용가능한 자원의 양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실천을 위한 경영체계와 설비, 인적 자원 확보 등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친환경실천은 이제 권고사항을 넘어 의무사항이 되는 추세이다. 물론 대부분의 인증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법정임의인증이거나 민간인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친환경성 요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녹색인증이나 도입 예정인 생태관광인증 등이 요구하는 기준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친환경관광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침투력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요 원인은 유사한 인증제도의 범람으로 인한 고객과 업계 종사자들의 혼란 때문이다. 또한 인증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증의 경제적 이득이 적어지게 된다. 기술적 계측과 요

구 절차의 복잡성, 환경 실행에 따른 일상적 경영과정의 중단도 업계로부터 종종 지적되는 불만 요소이다(Bohdanowicz et al., 2004).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성과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 획득 업체나 신청 업체의 환경성과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Warmken et al., 2005).

친환경인증(에코라벨)이 관광객 선택(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환경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즉, 관광객들이 개개의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에코라벨이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용한 정보로 인지되어야 한다. 다른 산업에 비해 관광분야에서는 에코라벨과 같은 소비자 선택 메커니즘이 환경규제와 같은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에코라벨은 관련 시장에 미치는 폭넓은 범위와 침투력을 갖추어야 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독립적인 감사,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이 요구된다(Buckley, 2002).

우리나라에서 친환경관광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합리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숙박업과 여행업의 친환경 실천율과 관련 태도가 다르므로 관광업종별 차별적인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관광사업체가 친환경 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관광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관광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금 감면, 정부 차원의 홍보, 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강미희. 2007. 생태관광인증제도 : 생태계 지역 사회 관광사업자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 발전전략, 한국학술정보(주) pp.22-31.
- 김성일 · 박석희 편. 2001.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 김태영. 2004. 국내 호텔의 환경친화적 경영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6 : 159-178.
- 김신중. 1998. 기업 규모에 따른 경영자원과 경영성과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18 : 111-128.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생태관광 인증제도 추진 방안 수립 pp.3-18.
- 오상훈 · 고성효. 2006. 제주지역 중소규모 관광 숙박업자의 환경의식과 경영실천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2(3) : 43-5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친환경관광인증제도 도입방안.
- 한국관광공사. 2009. 녹색관광 추진전략 42p.
- Bohdanowicz, P., B. Simanic & I. Martinac. 2004. Sustainable Hotels : Eco-Certification According to EU Flower, Nordic Swan and The Polish Hotel Association. Regional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nference on Sustainable Building(SB04), October 27-29.
- Buckley, R. 2001. Ecotourism Accreditation in Australia. In X. Font and R.C. Buckley, eds. Tourism Ecolabelling : Certification and Promo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Oxon, UK : CABI Publishing.
- Buckley, R. 2002. Tourism Ecolabel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 183-208.
- Honey, M., and Rome, A. 2001. Protecting Paradise : Certification Programs for Sustainable Tourism and Ecotourism. Washington :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Mihalic, T. 2001. Environmental Behaviour Implications for Tourist Destinations and Ecolabels. In X. Font and R. C. Buckley, eds. Tourism Ecolabelling : Certification and Promo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Oxon, UK : CABI Publishing.
- Sasidharan, V., E. Sirakaya & D. Kerstetter. 2002. Developing countries and tourism ecolabels, Tourism Management, 23 : 161-174.
- UNEP. 1998. Ecolabels in the Tourism Industry.
- UNWTO. 2002. Voluntary Initiatives in Sustainable Tourism : Worldwide Inventory and Comparative Analysis of 104 Ecolabel, Awards, and Self-commitments.
- Warnken, J., M. Bradley & C. Guilding. 2005. Eco-resorts vs. mainstream accommodation providers : an investigation of the viability of benchmark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Tourism Management, 26 : 367-379.